

광주 산단 근로청년에 교통비 지급

하남·평동·첨단산단 등 6곳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개인 또는 단체 산단공에 신청

광주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15~34세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19일 "정부가 7월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

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교통비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와의 거리, 버스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을 선정한 결과, 광주지역은 당초 조성중인 빛그린산업단지만 해당됐다.
이에 시는 현재 실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해 송암산단을 제외한 하남산단, 평동산단, 첨단산단, 소촌산단, 본촌산단 등 모든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광주지역 교통비 수급 대상 청년 근로자는 7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송암산단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통비를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신청하거나, 회사별로 모여서 단체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나 산업단지 관리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imnomo66@kicox.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산단별로 관리기관을 보면, 하남산단은 하남산단관리공단, 평동산단과 소촌산단은 광산구청, 진곡산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본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 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4335-2311~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4주년 시민 60명 현지 봉사활동

광주시는 20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사진) 운영단체인 (사)아시아희망나무와 함께 현지에서 개소 4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광주정신을 아시아로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캄보디아 캄퐁스푸 주지사, 시 관계자, (사)아시아희망나무 관계자 자원봉사자, 현지 주민 등이 참석한다.
봉사활동에는 광주 의료인 8명 등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진료소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마을을 찾아 진료와 마을 환경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폭력 '마을놀이터'서 함께 해결해요

참여 기관들 협약 체결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리빙랩'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마을놀이터' (이하 '마을놀이터')에 참여한 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다짐했다. <사진>
지난 18일 문성고에서 열린 민관협약식에는 마을놀이터 사업의 후원기관인 광주시와 주관기관인 광주시나브로문예협동조합, 협력기관인 송의중, 문성고, 광주대, 호남신학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빛고를 50+, 솔리언, 심시일만 마을커뮤니티센터, 생각쟁이 작은도서관 등이 참여했다.
마을놀이터 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의 정계와 처벌 중심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래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리빙랩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화해지원인 양성 ▲청소년 모의법정 운영 ▲또래 상담 동아리 운영 ▲화해 라디오·콘서트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의중, 문성고 등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며, 이를 매뉴얼로 만들어 광주지역 학교 현장에도 보급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신고센터 개소 3주... 시민관심 여전

개소 후 5건 접수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제보가 90건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통합신고센터' 이전 광주시 45건, (재)5·18기념재단 46건 등 9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27일 개소 이후 광주시 3건, 5·18기념재단 2건 등 5건이 추가됐다.
총 96건의 제보의 유형은 암매장 38건, 행방불명 13건, 헬기사격 및 발포 11건, 과격진압 9건, 성폭력 5건, 기타 2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접수 제보 8건을 전달했으며, (재)5·18기념재단에서는 암매장 관련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아직도 제보를 주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목격자·가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5·18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제보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18 관련 제보는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613-5386), (재)5·18기념재단(360-0552), 광주해바라기센터(232-3117)로 전화·우편·방문·온라인(www.518.org)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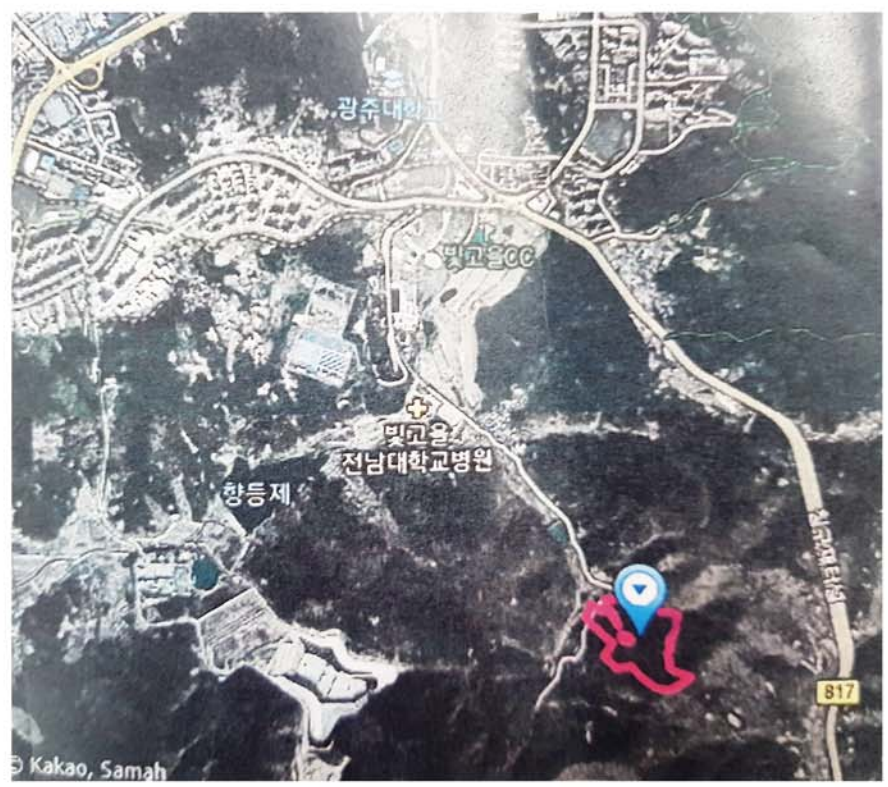
광주 시내버스 294대 10월부터 무료 와이파이

10월부터 광주지역 시내버스에서 기가급 공공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19일 "9월까지 시내버스 294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10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2019년까지 나머지 시내버스 706대를 포함한 전체 시내버스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시민들의 필수 생활비인 통신비를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 국비와 시비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하철 에티켓 지켜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 임직원 및 서비스마케터,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지역 대학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행복지킴이 캠페인단'은 지난 18일 지하철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지하철 타고, 내리지 않기', '교통약자에 자리 양보하기', '불법촬영하지 않기' 등 지하철 이용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